

디아컨템포러리 기획전

프로타고니스트 (PROTAGONIST) : 인물을 통해 서사를 그려내다

Annex 1



방정아 BANG JEONG A

서로 투사하기, 2026, Acrylic on canvas , 160 x 177.5 cm

전시 제목 : 프로타고니스트 (PROTAGONIST)

참여 작가 : 방정아, 이섫별, 서원미, 박소영

오프닝 리셉션 : 2026년 7월 4일 (토) 오후 3시 - 6시

전시 기간 : 2026년 7월 4일 (토) - 7월 25일 (토)

전시 장소 : DIA Contemporary (디아컨템포러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12 04419

전시 소개

디아컨템포러리는 2026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방정아, 이섷별, 서원미, 박소영이 참여하는 그룹전 《PROTAGONIST》를 개최한다.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는 흔히 ‘주인공’으로 번역되지만, 본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서사의 흐름을 이끄는 중심적 존재를 의미한다. 오늘날 회화에서 프로타고니스트는 반드시 한 사람의 인물일 필요는 없다. 하나의 몸짓, 사물, 풍경, 기억, 혹은 관계의 흔적 역시 화면 안에서 서사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회화 속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 이야기를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네 명의 작가는 각기 다른 회화적 언어를 통해 존재와 관계, 기억과 감정, 사회와 문화가 교차하는 장면을 펼쳐 보인다. 이들의 화면은 하나의 명확한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 서로 다른 시간과 감각이 중첩되는 공간을 형성하며, 관람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호출하고 새로운 서사를 구성하게 된다. 회화는 더 이상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제시하는 매체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관계를 생성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방정아(B.1968)는 동시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특유의 회화적 리듬으로 풀어낸다. 화면 속에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인물과 사물, 풍경이 뒤섞여 등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구조와 관계가 촘촘히 얹혀 있다. 강렬한 색채와 자유로운 붓질, 유머와 풍자가 공존하는 그의 회화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현실과 공동체의 풍경을 비춘다. 그의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재현하기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존재로 기능하며, 화면 전체의 서사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이섷별(B.1970)은 최근 연작 「기슭(Shore)」을 통해 서로 다른 세계가 맞닿는 경계의 공간을 탐구한다. 작가에게 기슭은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현실과 가상, 인간과 비인간, 기억과 현재가 서로를 침범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전이의 장소이다. 화면 속 존재들은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은 채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한다. 이섷별의 회화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보다 경계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연결, 그리고 공존의 가능성을 사유하게 한다.

서원미(B.1990)는 기억과 상상, 심리적 풍경이 교차하는 회화를 구축한다. 그의 작업은 특정한 사건을 재현하기보다 언어 이전의 감각과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흐름에 주목한다. 죽음과 불안, 상실과 같은 근원적 감정에서 출발한 화면은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기억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최근에는 자연과 시간의 순환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며, 형상은 더욱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해체된다. 그의 회화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보다 기억이 현재의 감각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박소영(B.1995)은 한국 민속미술과 전통문화에서 출발한 시각적 언어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다. 「Schrank Series」에서 캐비닛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기억과 문화, 신화와 개인의 경험이 축적되는 장소이며, 화면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주체로 작동한다.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상징과 조형 언어를 병치하고 재해석하는 그의 작업은 문화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번역되고 변형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의 회화에서 프로타고니스트는 인물이 아니라 사물과 상징,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시간과 기억이다.

《PROTAGONIST》는 회화 속 존재를 단순한 재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화면 안의 인물과 사물, 풍경과 흔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관계를 생성하며, 관람자의 경험과 만나 또 다른 서사로 확장된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네 명의 작가가 구축한 회화적 세계를 통해 오늘날 회화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누구를 혹은 무엇을 그 이야기의 주체로 호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회화는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타고니스트를 탄생시키는 열린 서사의 장으로 우리 앞에 놓인다.

작품 이미지

Annex 2



이셋별 LI SETBYUL

우리는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2026, Oil on Canvas, Mother-of-Pearl Frame, 175.5 x 97.5 cm

작품 이미지

Annex 3



방정아 BANG JEONG A

구멍난 마음, 2026, Acrylic coloring on cotton lumps , 200 x 145 cm

작품 이미지

Annex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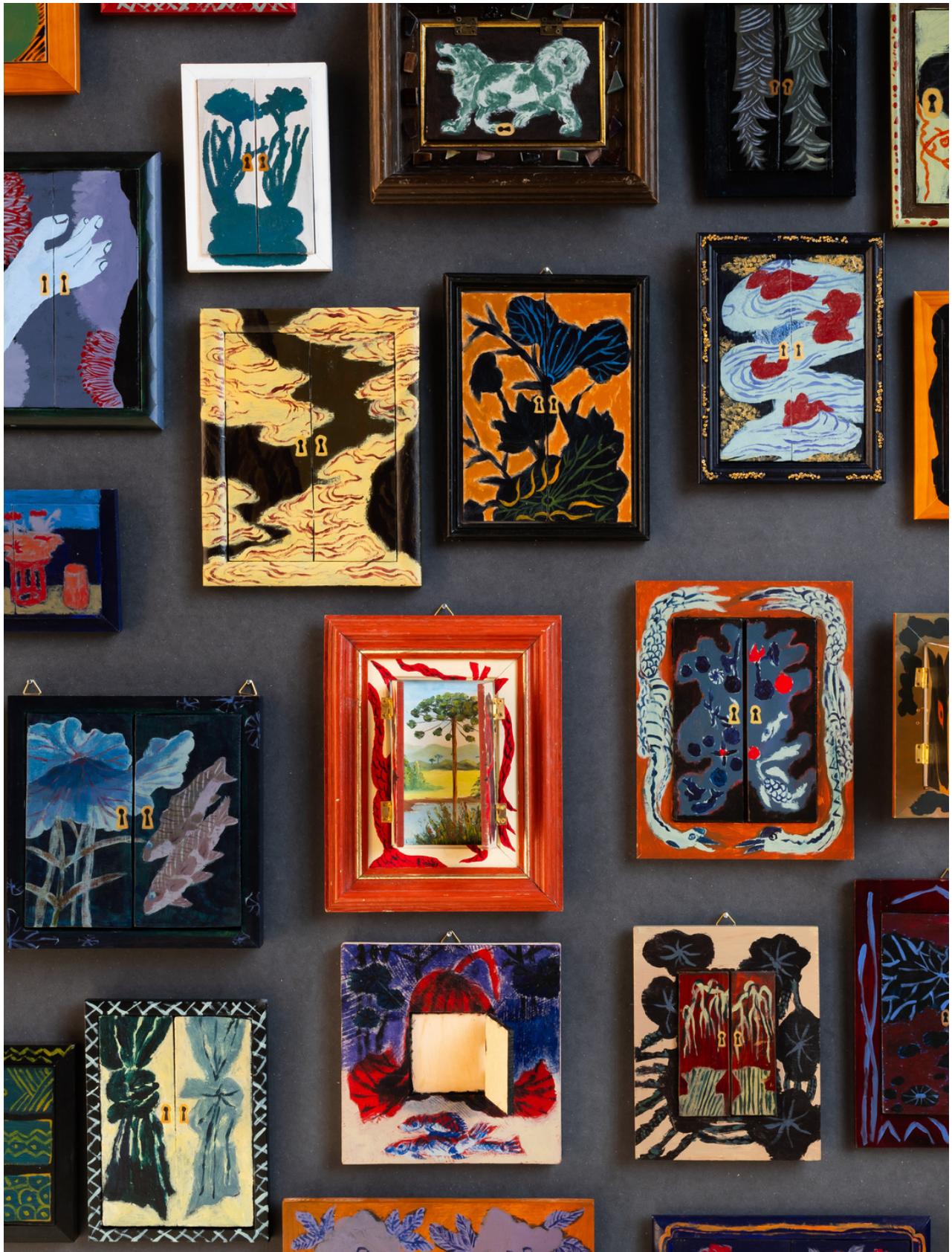


서원미 SEO WONMI

메아리 얼굴, 2026, Oil on linen, 45.5 x 45.5 cm

작품 이미지

Annex 5



박소영 PARK SOYOUNG

Schrack series, 2024, Acrylics on wood (installation view)

Photos: MATERIALMATTERS / Victoria Gentsch

Discover Inspiring Artistry 디아컨템포러리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A)는 동시대 미술을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감각과 사유, 물질과 맥락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싱가포르와 서울을 기반으로 축적해온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DIA는 동시대 예술의 다층적인 흐름을 탐색하며 작가와 작품, 공간과 담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DIA(디아)는 그간 정교하게 기획된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확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으며, 국내외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그 예술적 잠재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축적을 기반으로, 2024년 서울 삼성동에서 첫 문을 연 DIA는 이후 한남동의 확장된 공간으로 거점을 옮기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보다 넓은 시야로 동시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전시를 전개하고 있다.

DIA(디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작품 소개를 넘어, 각 작업이 지닌 조형적 언어와 개념적 깊이,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와 맺는 관계를 함께 드러내는 일이다. 회화, 조각,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예술의 실험성과 미학적 밀도, 물질성과 사유의 층위가 살아 있는 전시를 통해 동시대 미술에 대한 보다 확장된 감각을 제안한다.

동시에 DIA(디아)는 일시적인 흐름이나 협소한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한 시각과 태도를 지닌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이들이 보다 넓은 국제적 문맥 안에서 읽히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예술이 예상 가능한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발견과 질문,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DIA(디아)는 전시 공간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 작가의 비전과 관객의 경험, 그리고 동시대 담론이 유기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설계함으로써, 예술이 보다 밀도 있게 경험되고 오래 사유될 수 있는 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DISCOVER INSPIRING ARTISTRY라는 이름은 곧 이러한 방향성을 함축한다. 예술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발견이 다시 감각과 사고를 자극하며,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예술적 실천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DIA(디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전시 문의

[담당자]

김우재 디렉터

woojae@diacontemporary.com

info@diacontemporary.com

작품이미지의 저작권은 갤러리와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 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요청드립니다.

© Artist and DIA Contemporary

[디아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12 04419

www.diacontemporary.com | info@diacontemporary.com | +82 2 2235 2822